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제29대) (제10대) (제38대)
장로 · 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 예배

이번 주간 13일(수) 오후 7시에
장로 10명, 집사 20명, 권사 65명

교회는 이번 주간인 11월 13일(수) 오후 7시 수요2부예배시에 제29대 장로 · 제10대 집사 장립 및 제38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 장립을 받게 될 장로는 10명, 집사는 20명, 취임하게 될 권사는 65명으로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장로는 지난 10월 7일(월) 노회에서 실시한 고시에 이미 합격을 하였고, 집사와 권사는 지난 11월 2일 당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와 면접을 마치고 이 과정을 통과했다.

임직예배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설교는 '교회와 임직자의 충성' (고전 4:1, 2)이란 제목으로 총회장 김준규 목사(청주중앙교회)가, 성경 봉독에 세곡교회 이상천 목사가, 기도예배에 영동제일교회 노태진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어서 당회장이 피택장로, 피택집사, 피택권사에게 또한 교우들에게 서약을 시킨 후 안수기도와 악수례를 안수위원들이 하고, 당회장이 권사취임기도를 한 후 공포하게 된다. 공포 후 임직자에게 권면을 동현교회의 예종탁 목사가, 교우에게 권면을 금광교회 선병문 목사가 하고 동문교회 장정탁 목사가 축사를 하며 기념품 증정, 감사 및 광고를 한 후 남문교회 김선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임직예배를 마치게 된다.

(피택자 명단 순서는 나이순)

• 장로 피택자

최기홍(6-2) 이종섭(2-1) 이승철(1-2)
이갑재(6-1) 진홍용(2-2) 전홍렬(11-1)
이정우(2-1) 김단용(11-1) 황영일(4-2)
손 철(4-1)

• 집사 피택자

박노택(3-1) 이호성(13-2) 마숙전(10-1)
장봉순(6-2) 이상호(3-1) 엄기정(8-2)
박종현(7-1) 박문태(11-2) 박창서(2-1)
금호탁(11-2) 최지운(9-1) 안병호(8-1)
노영한(1-1) 권 철(8-2) 안성영(11-1)
김규중(9-2) 이병영(1-1) 강희창(9-1)
이찬욱(4-2) 김광호(12-2)

• 권사 피택자

김석순(8-1) 송정배(11-2) 여옥남(1-1)
유남순(3-1) 강봉순(13-2) 신정호(7-1)
김점순(6-1) 장정숙(3-2) 김화선(1-1)
문정덕(6-2) 이인성(10-1) 김 철(8-1)
임원실(13-2) 박송금(6-1) 윤정식(11-2)
김순애(6-2) 김한선(6-1) 김필녀(6-2)
지순애(11-2) 신차식(4-1) 이명균(10-2)
김춘식(3-1) 우정자(9-2) 허연옥(2-1)
이미애(7-1) 김국자(2-1) 이정숙(12-2)
홍영숙(5-1) 차창숙(3-2) 박노희(2-2)
최영순(13-2) 김말수(13-1) 한 복(7-2)
이숙자(7-2) 이문구(5-1) 안경덕(2-2)
김숙희(10-1) 정정자(4-2) 박옥림(9-1)
성춘순(4-2) 성부자(2-1) 윤송죽(11-1)
이정자(3-2) 노정자(1-2) 김정애(9-1)
윤희순(8-2) 임선영(9-1) 정호진(1-1)
김인자(4-1) 한정희(1-2) 최현자(5-2)
김현순(3-1) 김봉재(9-2) 김의숙(7-1)

반연숙(1-2) 조영숙(5-2) 박효순(8-1)
강순희(11-1) 라종예(10-2) 김은희(7-1)
김은숙(2-2) 황주옥(4-1) 김정순(12-1)
최영실(4-2) 이원화(10-2)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교회는 다음 주일(17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시에는 하나님께 추수감사헌금을 드려 감사를 표하게 된다.

제6차 학습 및 세례식

금년들어 여섯번째로 실시하는 학습, 세례식이 오는 11월 22일(금)에 실시된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17일(다음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일정에 따르면 된다.

· 예비교육과 문답 - 2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 · 학습, 세례식 - 22일(금) 오후 7시 갈릴리움

연말 교회 주요 행사 일정

11/10(주) '97 서리집사 · 권찰 교육 및 면접(2차)
13(수) 29대 장로, 10대 집사 장립 및 38대 권사 취임 예배
17(주) 위원회 일꾼 청원 마감 추수감사주일
22(금) 제6차 세례식
23(토) 교육위원회 총회
24(주) 제4차 성찬식 교구위원회 총회
12/4(수) 정기당회
8(주) '97 교구일꾼 및 제직 임명 제직회 교구총회
11(수) 임시당회(97년도 예산)
15(주) 위원회 일꾼 임명 남녀전도회 총회
20(금) 성탄축하음악예배(연합찬양대)
22(주) 전도위원회 총회 찬양대 총회
25(수) 성탄절 감사예배 (오전9, 11시, 오후 7시)
28(토) 교사 및 새가족 양육위원 총회
29(주) 은퇴자 및 근속자 포상 특별제직회(4부예배 후)

'96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임마누엘찬양대가 축하 감사 찬양 연주한다. 오는 11월 15일(금) 오후

연주자는 충현 남성중창단을 제외하고는 전원 임마누엘찬양대와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구성됐다.

추수감사

'96 임마누엘 찬양의 밤

11월 15일(금), 오후 8시

8시 본당에서 실시할 이 연주회는 기존의 하나 연결된 곡을 연주하던 것에서 벗어나 합창, 독창, 여성중창, 남성중창, 트럼펫 2중주,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기에 훨씬 유익하게 꾸며졌다.



다함께 모여 1년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붙여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추수감사절도 없을 것이다.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12월에 <계간충현> 겨울호를 준비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 교회 사람, 교회 자랑 - 교회생활을 하며 경험한 '교회 사람, 교회 자랑'의 내용들로 ① 내 교구 자랑, ② 부서 자랑, ③ 나는 이래서 충현교회가 좋다 ④ 기타

2. 원고마감 / ① 주간충현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시오.

② <계간충현> 원고는 11월 27일(수)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악인의 꾀술과 하나님의 공의

(시편 36:1-12)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저작 환경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36:1,2)

(1)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선을 행할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했을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므로 감사가 없고 원망을 시작하므로 최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반할 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면 죄를 안범할텐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서운 것을 모르므로 죄를 범합니다.

(2) 악한 행동이 은폐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 행함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고, 상과 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범죄함을 좋아하는 악마가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악마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해도 잠시 있다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2. 악인이 범하는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36:3,4)

(1) 꾀술의 죄를 범합니다

입으로 죄를 범하는데 그 입의 말이 악독합니다. 꾀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 욕심이 드러날까봐 의인을 죽이려고 중상모략합니다.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말로 죄를 범하는 것, 독을 품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쓰면 좋거니와 잘못 쓰면 너무나 무서운 방화범이 됩니다.

(2) 남의 생명을 업신여깁니다

하루를 보내고 조용한 밤 시간에 지나간 하루를 검토해 보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조용한 시간이 되면 의인 누구를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죽이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연구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단 쇠에 화인을 맞았고 지워 고

하를 막론하고 악마의 졸도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생명을 업신여기므로 자기의 생명도 업신여김을 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3) 악한 일에 재미를 붙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재미를 붙이면 좋겠는데 불선(不善)한 길을 택하고 악한 일을 하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연구하며 악을 행하기에 생명을 바치고 성공을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사람의 가족은 썼으나 악마가 돼버린 인생들입니다.

3. 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36:5-9)

세상은 순서가 바뀌고 선과 악이 뒤집어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로 애를 쓰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한 번, 두 번 당하면서도 계속 참으며 선한 일에 충성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시고 그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십니다.

(1)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축복이 공중에 있다는 말은 인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복을 못받을 곳이 없도록 배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받습니다.

(2) 측량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베푸시기 원하는 축복은 산과 같습니다. 누가 산을 흔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절대로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닷물을 측량할 수 없는 것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복은 세밀히 살피신 후 그 판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마음이 갈갈해서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 복락의 강수가 흐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보좌에서부터 샘이 터져서 샘물이 성전 동편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 나오는데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합니다. 일천 척을 재니 물이 발잔등에 잠기고 다음 일천 척을 재니 무릎이 잠깁니다. 다음 일천 척을 재니 물이 허리에 잠기고 다음 일천 척을 재니 발이 땅에서 떨어져 온몸이 떠서 해염을 칩니다. 이것이 복락의 강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처음 받으면 물이 발잔등을 덮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

악독한 자는 자기의 죄에 얽들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자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의인이 당하는 시험은 축복을 받는 준비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려움을 잘 안당하는 것 같으나 한번 어려움이 오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악인이 당하는 어려움의 차이입니다.



님 앞에 기도하며 의논합니다. 복락의 강수를 넘치도록 마시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죄지를 생각은 꿈에도 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복락의 강수를 마신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3) 주와 연합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과 지식과 권세가 있어야 무슨 일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는 한 모퉁이에 있는 부속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값있는 인생을 살고 광명 중에서 삽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꽃을 피우고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나 되든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모으고 권세를 얻어도 죄만 범하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판단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 열매 맺는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 의인의 기도와 죄인의 결국이 어떠합니까(36:10-12)

(1)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조심하면서 자기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한 일은 과장하여 선전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정직하게 내어 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교만하고 악독한 사람의 발이 의인의 장막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인의 집을 지켜 주도록 기도합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지키시므로 손 댈 자가 없습니다.

(2) 죄인의 결국은 끝장입니다

악독한 자는 자기의 죄에 얽들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자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시험을 자주 치르는 학생의 실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의인이 당하는 시험은 축복을 받는 준비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려움을 잘 안당하는 것 같으나 한번 어려움이 오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악인이 당하는 어려움의 차이입니다.

하만은 의인을 몽땅 죽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12월 13일에 다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열 아들을 키우며 자손만대까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의인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50구빗 되는 나무에 오히려 자기가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 아들이 가문과 함께 일시에 땅에 떨어져 자취가 없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숨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서 떠는 법이 없고 악마는 그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사람을 겁내는 자가 되지 말고 악마가 도망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더욱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어 더 크고 영화로운 복을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주시려고 연단시키시는 시험입니다. 악한 사람의 시험은 마지막 끝나는 시험이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자주 만날지언정 축복받는 시험을 당하며 멸망받는 시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처럼 쓰임 받는 새가족 양육교사

윤 삼 중

(목사, 교정전도회·새가족부 지도)

교회에서 최고로 위로함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은 교회에 나오면 왠지 낯설고 부담감을 느끼고,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 속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새가족이 등록한 후에는 잘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깊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무척 요청됩니다. 저는 2년째 새가족부를 지도하면서 양육위원이 얼마나 새가족에게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고, 헌신된 양육위원이 새가족부의 부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양육위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맑은 새가족을 아주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관리하면서 그 반을 자체 배가시키는 한 분의 양육교사를 만나 함께 대화한 내용을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의 사역의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질의자 / 권사님께서 새가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며, 새가족에게 참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며,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새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 예, 제가 새가족부에서 3년째 새가족들을 섬기다가 보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함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때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새가족을 대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새가족을 관리하고 양육한다기보다는 그

들이 제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도 하고, 그들의 열심있는 신앙생활을 볼 때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 새가족을 양육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또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열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자 / 권사님 반에 배정된 새가족을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십니까?

응답자 /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저는 신입신도부터 그 주간에 배정받은 새가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한 후에 우리 중현교회에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에서 공부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후에 간단하게 새가족부에 오셔서 공부하는 것이 신앙 성장과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는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주고, 주일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가족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주일에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고, 함께 교회식당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국수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식사 후에 새가족을 모시고 교회의 안내도 해주고,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도 해주면서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을 우리 집으로 전부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때 새가족들이 참 좋아하고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생일이나 경조사에 있을 때 새가족에게 전화로 혹은 친히 참여하여 축하하거나 위로해 주니 무척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저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해 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질의자 / 참으로 권사님께서 모범적으로 새가족을 양육하고 관리하는군요. 권사님처럼 하려면 등록한 새가족이 거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반은 다른 반에 비하여 무척 많은 새가족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응답자 / 우리 반에 속한 학생들이 자진해서 안 믿는 이웃,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새가족부에 참여하니, 말씀의 은혜도 받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새가족이 친구, 이웃을 데리고 오니 저는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새가족이 새가족의 심리와 상태를 알고 잘 전도해 오는 것 같아요. 반 배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가족들이 은혜받고 전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새가족을 붙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새가족을 돌봐주

고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질의자 /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새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듣고 나니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합니다. 권사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양육위원이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 효과적으로 새가족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교회 전체가 가지고 새가족을 환영하고 섬겨 주는 분위기로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자연히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 새가족들과 함께



“중현교회 허리 보강합시다”

10대 기초론, 20대 결단론,
30대 승부론

장 봉 생

(목사, 선교위원회·대학부 지도)



평소 지론이 있습니다. 10대의 생 각이 평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20대에 내린 결단이 평생을 좌우하며, 30대에 건 승부가 평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다연령층 공동체입니다. 어린이로부터 연세 드신 노인까지 다 중요합니다. 10대에 비전을 갖고 기초를 공고히 하며, 20대에 헌신-경건제절-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30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10-20-30패턴이 중현교회의 미래와 관련있습니다. 10대를 보호하고 20대를 키워 주고 30대에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를 키우지 못하면 잡을 30대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20대를 30대에 정착시켜 교회의 허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40대부터는 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막상 중직을 맡기려고 할 때 사람없음을 아쉬워한다면 이는 20대부터 키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는 10대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20대를 집중적으로 키우며, 30대를 전략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10대에게 애정과 관심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기본체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조금 성숙한 자녀에게는 교육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20대를 키우려면 실력있는 스승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받은 인물을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면 적합한 자리와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30대를 잡으려면 적합한 봉사의 자리와 실력을 결집시켜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젊음이 좋은 것은 이것이 내가 위해서 죽을 그 진리라고 생각하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의 앞마당에서 비전의 깃발을 흔들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진리의 신조를 외칠 때에 뜨거운 젊은 가슴들이 물

이런 10-20-30패턴이 중현교회의 미래와 관련있습니다. 10대를 보호하고 20대를 키워 주고 30대에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를 키우지 못하면 잡을 30대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20대를 30대에 정착시켜 교회의 허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40대부터는 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려들어야 합니다. 중현(忠峴)의 젊은이, 충성스런 언덕에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합성을 질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은 안도감과 호기심으로 이들이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오는 11월 24일 주기도문의우기대회를 실시한다.

▶ 유아부에서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12시 30분에 교육관 212호에서 부모님 초청 좌담회를 실시한다. 주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고 강사는 정지자 사모이다. 자녀들 양육에 도움이 될 이 좌담회에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유치부와 초등1부에서는 오늘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 중등2부에서는 오는 11월 24일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등2부에서는 이미 예상문제지를 배

부하고 학생들이 준비하게 했다.

▶ 고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후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안수기도회를 실시한다. 집례는 김창인 목사가 하게 된다. 고3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초청전도대회를 실시한다.

▶ 장년3부에서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를 제3차 부흥 기간으로 정하고 출석 인원 500명을 목표로 기도하며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요한일서 5장 1-23절(50세 이상은 10절까지)이다.

▶ 아멘찬양대에서는 11월 28일(목)

제8회 정암신학강좌

11월 11일(월) 오후 3~9시, 갈릴리홀에서

고 정암 박윤선 목사를 추모하여 열리는 제8회 정암신학강좌가 오는 11월 11일(월), 오후 3~9시에 우리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박윤선과 묵회'라는 주제하에 · 박윤선과 기도(강사 김명혁 박사) · 박윤선의 설교(강사 정성구 박사) · 박윤선의 성령론(강사 황창기 박사)이란 제목으로 세 강좌가 진행

된다.

이번 강좌에는 충현 남성중창단이 찬조출연하게 된다.

회비는 없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한국 보수신학의 거두이며 진실한 묵회자로 평생을 살다 가신 고 박윤선 목사의 신학 및 묵회를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선교지를 다녀와서 ▶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며

동지현

(집사, 선교위 실행위원, 고등부 교사)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은 9월 25일 아침, 우리는 장봉생 목사님의 지도로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하였다.

선교사님들께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는데 중량이 초과되어 공항에서 마음을 졸였으나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시작부터 체험하게 해 주셨다. 우리 일행을 태운 KE 815편이 김포공항을 벗어나 드넓은 상공을 운항하는 동안 저 아득한 아래에 펼쳐지는 넓은 들과 끝없는 대해, 사막과 섬들, 갖은 흰꽃 무늬의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졌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전에는 별의미 없이 불렀던 이 찬양이 구절구절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다. 높은 하늘에서 육지를 바라보니 강도 하나의 선에 불과했으니 사람의 모습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다.

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미물과도 같은 우리들과 그렇게도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니 그 사랑이 가슴과 목을 메이게 하였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 각하시며 인자가 무엇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4) 하는 시편기자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나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텔아비브 공항에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은 우리들을 김주경 선교사님은 환한 웃음으로 맞아 주셨다. 먼 이국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니 가족을 대하듯 반갑고 기뻐다.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 기거할 Yad Hashmona Moshav(유대기독교인 공동체)로 향했는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예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해 준 곳이었다.

모든 건물이 아름다운 통나무로 짜여져 있었고 예배실과 식당, 숙소, 강당 등이 구비되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맑은 공기와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어느곳에서나 QT와 찬양을 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했다.

교회를 허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충현교회가 이스라엘에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성지연구소를 짓는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부터 엠마오와 갈멜산 - 갈릴

리호수 주변 - 가이사라 - 나사렛 - 게네사렛 들판 - 요단강 - 벳새다 - 예루살렘 - 겐세마네 동산 - 통곡의 벽 - 마가의 다락방 - 맛사다 - 사해 - 홍해 등을 둘러보면서 곳곳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성경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보셨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금 믿음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되었다.

28일 오후 3시 30분경 다바국경을 넘어 애굽땅을 밟았다. 이곳에서 5시간 가량 버스로 사막과 들산뿐인 시나이반도를 달려 시내산 부근의 한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이준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카이로에서 오후 3시의 주일에 배에 참석하기 위해 밤 12시 30분 우리는 시내산을 오르기도 했다. 모세가 본 '불붙는 가시나무'의 자리에 세워진 성 캐더린 수도원을 기점으로 2시간 가량은 낙타를 탄 후 700여 단계단을 오르는 코스였다. 캄캄한 밤에 초롱초롱한 별빛과 휘영청 밝은 달빛 속에서 처음 타보는 낙타는 우리에게 동방박사가 된 기분을 주었지만 한 여집사님은 낙타 물이꾼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놀라서 울었던 추억도 갖게 해주었다.

시내산 정상에서 추위에 떨며 드렸던 새벽기도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더더욱 뜨거웠고 진지했다. 대원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선듯 경건하고 진실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거나 잘못되어질 때 채찍질이 되리라 믿는다. 예정대로 오후 3시에 이준교 선교사님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 후 강의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예수님 피난교회, 기독교 박물관, 애굽 복음주의신학교, 피라밋과

제2회 외국인근로자 초청전도집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와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식사 및 선물 증정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전도 차원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에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주로 겨울 옷가지나 기타 생활

에 요긴한 생활 필수품(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일체, 각종 세제류 및 휴지, 각종 식용 통조림 등)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11월 10일(주일)까지 영어예배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1996년 11월 17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이승림 목사(552-8200)

별 찬양을 부르며 간중도 발표하면서 성도간의 교제와 교구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스핑크스, 카이로 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피라밋은 3개가 나란히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 가운데 피라밋 앞에 �핑크스가 있었다. 이 피라밋의 주인공은 애굽의 전통인 장자가 아닌 차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였다.

바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때 그의 형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18왕조시대로 추측하는데 가장 전성기를 누린 시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애굽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종로트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계획하셨던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니시니라"(수 2:10-11) 하는 고백을 이 땅의 모든 사람 입에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알게 된다.

우리가 방문한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70여명이 희생되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곳이 통제되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른 성지순례팀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나사렛 등을 방문하지 못하여 매우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에게 특별히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렸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하나님께 높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